

해남군 햇김 본격 출하...“땅끝 바다의 품미 맛 보세요”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후 첫 위판...가격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 592어가 김 양식...친환경 어망·기자재 지원 고품질 물김 생산

해남군 땅끝바다의 햇김 수확이 시작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화산면 구성위판장에서 첫 물김 위판이 실시됐다. 이날 4개 어가에 서 298포대(120kg기준) 총 35.7t을 위판했으며,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오른 포대당 35만~45만원 선에 거래됐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잇바디물김으로 업체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일명 ‘곱

창김’으로 불린다. 곱창김은 해양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하고, 남해안 일대에서 10월말부터 한달 정도 짧은 기간 소량만 생산된다. 일반김에 비해 빛깔과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조미 없이 살짝만 구워도 바삭한 김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원초가 거친 일반물김에 비해서도 부드럽고 담백해 돌김 특유의 고소함이 살아 있다.

해남군은 592어가에서 8254ha의 김 양식을 하고 있으며, 총 시설량은 16만5087척이다. 전년도 대비 면적은 17ha, 시설량은 346척 증가했다.

올해 군은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김어망 지원, 양식 기자재 공급 등 16종 사업에 대해 165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인증 친환경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군은 역대 최대 위판액 1138억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025년산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김 수출 활성화로 김 양식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해남 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화산 구성항 물김 위판.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김 가공 공장.

<목포시 제공>

목포시, 3분기까지 김 수출액 1억 달러

지난해보다 39% 늘어 역대 최고

목포시는 올해 3분기까지 김 수출액이 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한 규모로 전국 지자체 중 1위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는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AI기반 마린 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2026년까지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로 조성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통해 김 가공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 수출 등을 지원하고, 국제 마린 김 거래소를 통해 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세계 마린 김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는 고부가가치 김산업에 주력해왔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2024년 상반기 김 수출액 전국 1위 달성과 올해 3분기에 1억 달러 달성이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대한민국의 김 수출이 곧 목포의 김 수출이라는 생각으로 고부가가치 김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15~17일 남악중앙공원서 ‘무안YD페스티벌’

전국 락 경연대회·락 밴드 공연

무안군이 오는 15~17일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무안YD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즐거움이 터진다! 무안 YD(Young Dream) 페스티벌!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수험생과 청년들에게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만끽하고자 마련됐다.

첫날 개막식과 개막축하공연(루시, 김나영)으로 시작해 16일 거리 퍼레이드, 전국 락 경연대회와 초청공연(조바킵, 네이비멜팅슬라이드), 청년을 위한 합창공연(비와이, 행주, 블랙나인, 마린) 등이 열린다.

17일에는 전국 락 경연대회와 유명 락밴드인 부활·크라이밍·엔본의일이 출연하는 락페스티벌이 열린다.

거리 퍼레이드는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스트

릿댄서를 비롯한 전문퍼포머와 기관사회단체, 읍면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드레스코드(흰색상과 청바지) 이벤트를 진행해 무릎담요, 고무마, 무안향토탕살 등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4차 산업과 메이커스페이스 체험관 ▲우리쌀과 콩을 활용한 시식, 체험관 ▲황토고구마를 활용한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무안고구마 홍보관 ▲무안 문화인 ‘국화 전시’ 등도 열린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제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즐거움이 터지는 청년도시 무안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는 한 방에 날리고 새로운 열정을 가득 채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YD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는 축제 열린다

영암군 9~10일 목재누리 페스티벌

영암군이 9~10일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서 ‘제1회 전라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목재 이용-탄소중립’을 주제로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등 목재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이번 행사는 영암군의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와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한다.

페스티벌 첫날인 9일 퓨전국악밴드의 ‘목케스트라 연주’를 시작으로 강석구 충남대 교수의 목

재문화심포지엄 ‘전남형 목재전환도시 육성방안’이 열린다.

사전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우드 그라프리카’ ‘우드 바닝 가족사진 만들기’ ‘우드 캠핑’ 등도 예정돼 있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실생활 목공예 디자인 공모전 작품 전시도 열리고, 전남 8개 지자체의 목재문화체험장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목재놀이터’와 ‘힐링 쉼터’가 운영되며 다양한 목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페스티벌 부스 5개 이상에서 체험활동을 한 이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목재 누리 스탬프투어’, 영암군 목공예 동호회원들이 참여하는 전시도 볼 수 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목재를 생활 속 가까이 들이는 체험의 장에서 전통한옥의 문화를 즐기는 비엔날레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공공비축미 7663t 매입...신동진·새청무 2개 품종

매입가격 12월 중 확정 연내 지급

영광군이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가루쌀 698.4t, 산물벼 500t, 친환경벼 409.6t, 포대벼 6055t 등 총 7663t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배정 물량은 비 재배 면적 감축 협약과 전락작물직불 예비총체벼에 대한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중 배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2종이다. 산물벼는 10월 말까지 영광미곡종합처리장(RPC)·백수RPC·서영광DSC·굴비골DSC에서 매입한다.

건조벼는 13~15% 수분을 유지한 상태로 11월부터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장고를 통해 출하하면 된다.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을 혼합해 출하하거나 친환경 벼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이 검출되면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전



정세일(오른쪽) 영광군수가 공공비축미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세일 영광군수는 “벼 적기 수확·적정 건조를

통해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 승화원.

목포시 화장로 1기 증설...신안군민도 우선 예약

5억원 들여 연내 준공 내년 가동

목포시가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승화원)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이번 달부터 화장로 1기 증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인 전남 서남권 지역의 화장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화장로 추가 설치는 목포시의 숙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가 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현재의 화장로 6기에서 7기가 운영돼 하루 14건(연간 5000여건)에서 18건(연간 6500여건)으로 화장 수요가 늘어난다.

시는 이번 증설로 연간 최대 1500여건의 추가 화장이 가능해 초고령 사회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은 지난

2015년 12월에 개장해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시설로서 화장 수요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화장장은 화장로 추가 설치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공사 기간에도 화장로 6기를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로 증설되는 화장로는 신안군과의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은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우선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화장로는 미래의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유족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안군 주민들이 화장로를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목포·신안 통합 논의 또한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